

제공일자	2014. 9. 1(월)	담당자	조재린 연구위원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34	총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: IFRS와 RBC 연계방안』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조재린 연구위원은 “보험회계기준 개정안(IFRS 4 phase 2) 최초 적용 시의 장래결손의 인식 문제와 할인을 급락에 따른 보험부채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IFRS와 RBC 연계전략이 필요함”을 주장
- 이에 장래결손을 보전할 재원인 장래이익도 RBC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, 경기변동 등에 따른 할인을 급락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감독조정수단 필요성 언급

□ 보험연구원은 9월 2일(화)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“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: IFRS와 RBC 연계방안”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
- 이번 세미나는 4년 앞으로 다가온 보험부채의 시가평가(IFRS)를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(RBC)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됨.
- 이날 주제발표자인 조재린 연구위원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전제로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IFRS-RBC 연계방안을 제시함.
- 이후 류근옥 교수(서울과기대)의 사회로 금융당국자와 보험회사 담당임원 등이 IFRS와 RBC 연계방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음.

보험부채의 2013년 적정성평가(LAT) 결과

- 2013년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보유계약에서 35조원의 장래결손과 64조원의 장래이익을 예상하고 있음.
 - IFRS 전면 채택 이후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보험부채 적정성평가 (LAT: Liability Adequacy Test)에서는 보유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보험회사가 장래 29조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평가됨.
 - 2013년 말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유배당보험을 포함한 금리확정형계약 등에서 3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, 금리연동형계약 등에서 64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장래 손실이 예상되는 보유계약에 대한 IFRS 4 phase 2 최초 적용

- 보험회계기준 개정안(IFRS 4 phase 2)은 손실계약을 즉시 인식하여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35조원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한편, 보험회사의 장래이익을 반영하여 기업가치가 29조원 늘어났음도 보여줄 것임.
 - 현재의 LAT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, IFRS 4 phase 2에 따라 장부상 자본은 35조원만큼 감소하고, 64조원의 이익은 보험부채에 표시되었다가 여러 기간에 나누어 자본에 포함될 것임.
- 따라서 IFRS의 장부상 자본만을 보험회사 RBC비율에 반영할 경우 동 RBC비율이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.
 - 지급여력평가 관점에서 보면, 장래결손은 장래이익으로 보전될 수 있으나, 2018년 IFRS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이를 반영하지 않음.
 - 결국 장부상 자본만을 RBC에 반영할 경우 RBC비율 급락이 예상되고, 이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
 - 따라서 장래이익이 장래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장래이익을 포함하여 RBC비율을 산출할 것을 제안함.

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 적용과 할인율의 급락 가능성 고려

- 보험부채 시가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할인율인데, 2018년경에는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며, LAT 강화가 적절한 대안임.
 -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- 장래이익을 포함하여 RBC비율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하락하면 지금보다 장래결손은 더 커지고 장래이익은 지금보다 줄어듦 것으로 예상되어 RBC비율의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.
 - 따라서 할인율 하락에 따른 RBC비율 악화에 대비하여 새 제도 시행 전까지 LAT를 강화하여 보험회사가 준비금을 충분하게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- 그러나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을 제안
 - LAT 강화만으로는 할인율 급락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감독수단이 필요
-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"보험회사가 변화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데다 대응 기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한 이행전략과 비상계획이 필요함"을 강조함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